중국 싱크탱크 20200819 서민혜

**상해국제문제연구원**

**中美处于“不对称战略竞争” 美合围中国难获认同**

陈东晓 国际战略研究所 2020-08-07

★中美战略竞争并不是一场以击倒对方为目标的“拳击赛”，而是更像一场 “马拉松赛”，主要考验自身耐力、意志及战术配置。

★如果学会用国际通用的概念讲我们的故事，会起到事半功倍的效果。总结我们的对外交往经验时会发现，往往当我们越是过于突出政治话语的“中国特色”又缺乏必要的阐释，不被理解甚至被刻意曲解的可能性就会越大。

新冠病毒大流行急速加剧了全球战略动荡。百年未遇的超级大流疫和百年未有之国际大变局相互叠加并相互激荡,放大和加剧了国际体系中的固有矛盾,加速了已有的变化态势,也增加了国际体系由量变向质变“突变”的风险。

在这样的大背景下，我们更要以全面、辩证和发展的眼光认识当下中美关系的特性，旗帜鲜明地反对一些美国政客对中美关系“新冷战”的设定和误导，保持战略定力和耐力，坚决不陷入一些美国政客挖下的所谓“中美（西）意识形态战略对抗”的陷阱。同时，我们应聚焦疫后如何推进全球可持续发展这个人类共同面临的重大课题，同国际社会一道，共建中美竞争合作的新议程。

**战略竞争非“新冷战”难以形成对抗阵营**

전략경쟁이 신냉전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캠프를 형성하기 어렵다

当下中美两国总体处于一种**“不对称的战略竞争”**关系之中。

비대칭전략경쟁

之所以称之为“战略竞争”关系，一是因为中美竞争关系是由冷战后国际权力扩散、转移引发的大国结构性竞争。 '전략적 경쟁'관계라고 불리는 이유는 중미 경쟁 관계가 냉전 이후 국제 권력의 확산과 이전에 의해 촉발 된 주요 세력 간의 구조적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国际权力从以美国为首的西方向以中国为代表的非西方国家扩散、转移，加剧了美国对中国复兴的戒惧，推动了美国对华由“交往”战略向“全面竞争”战略的转变。 미국이 이끄는 서구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비 서구 국가로의 국제 권력의 확산과 이전은 중국의 회춘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심화 시켰고 미국의 '상호 작용'전략을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했습니다. 二是在于中美竞争关系带有日益明显的制度与模式竞争的色彩。

두 번째는 중미 경쟁 관계가 점점 더 시스템 및 모델 경쟁으로 특징 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中国复兴及背后所支撑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的不断成熟和自信，相对应的是新世纪以来美式资本主义制度的流弊不断及其主导的自由主义国际制度的衰败，美国人的“制度自信”严重受挫。

之所以强调“不对称”，一是中美之间认知的不对称。

"비대칭"을 강조하는 첫번째 이유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인식의 비대칭 때문입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政客对中美关系“新冷战”的设定。

중국은 중미 관계에 대한 미국 정계가 만들어내는 "신냉전"형성에 단호하게 반대

一方面，中方既无“埋葬”美国资本主义体制、也无向外“移植”、“输出”中国制度模式的战略意图。

중국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를 "매장"하지 않았으며 중국 제도 모델을 "이식"하거나 "수출"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없습니다.

另一方面，中方不认同中美竞争的本质是霸权争夺战。

또한 중국은 중미 경쟁의 본질이 패권을 위한 싸움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尽管中方认为，以美国为主导的现有国际秩序需要加以改革和完善，从而更合理地反映发展中国家日益增长的力量和利益诉求，但中方一贯主张通过建设性的改革来完善 现有的国际体系。

중국은 기존의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성장하는 개발 도상국의 권력과 이익을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상 건설적인 개혁을 옹호 해 왔습니다.

二是中美之间的政策手段的不对称。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정책 수단의 비대칭입니다.

尤其是特朗普政府推进对华战略竞争可谓“无所不用其极”。中方认为中美战略竞争主要是经济发展和国内治理效能的竞争，主要靠经济协调发展，科技持续创新，国内治理体制机制日益完善等来提升国家高质量发展的能级。中美战略竞争并不是一场以击倒对方为目标的“拳击赛”，而是更像一场 “马拉松赛”，比赛主要考验的自身耐力、意志及战术配置。

三是中美之间的力量对比的不对称。 세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세력 균형의 비대칭입니다. 美国目前比中国拥有更大的力量优势，包括军事优势、经济科技优势、联盟优势。

四是中美两国的国内政治形势的不对称。 넷째, 중국과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의 비대칭

现在美国在特殊的大选背景下，疫情蔓延、经济衰退叠加导致美国国内政治生态高度不确定，特朗普政府对华政策的极端化和冒险性前所未有。更长时间看，美国国内政治生态的党争恶化、政治极化加剧等局面难以改观，美国非理性的国内政治绑架对华决策态势或长期存在。相对美国，中国国内政治稳定，中国对美政策也保持着更高的稳定性和连续性。

总之，中美战略竞争不是“新冷战”，因为中方对处理中美关系的战略选择同样至关重要。

요컨대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새로운 냉전"이 아닙니다. 중국의 중미 관계를 다루는 전략적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对此我有充分的信心：一是因为中方一直旗帜鲜明地反对所谓“新冷战”，继续保持定力和耐力保持与美国各界交往及合作的势头。实际上，由于中美多年来形成的复合的利益交融格局，双方都无法承受长期对立的代价，反过来会制约中美爆发“新冷战”；

하나는 중국이 소위 '신 냉전'에 항상 반대해 왔으며 미국의 모든 계층과 교류 및 협력의 추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이 수년에 걸쳐 형성해온 이해 관계의 복잡한 혼합으로 인해 양측은 장기적인 대결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어 중국과 미국 간의 "신 냉전"의 발발을 제한 할 것입니다.

二是因为美国盟友和伙伴不会轻易“选边站队”，只要我们坚持与美国盟友和伙伴继续发展相互尊重、互利合作的关系，世界上就难以形成美国政客所希冀的中美两个对立对抗的阵营，美国政客们也就难以在国际上通过举“对华新冷战”的旗帜来实现“合围”中国的目的。

두 번째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가 쉽게 "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상호 존중과 호혜 적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한, 세계가 미국 정치인이 바라는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치인들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냉전'의 기치를 높이면서 '중국 포위'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

**西方身份认同危机非仅“外部敌人”所致**

在全球抗疫中，中国援助展现的责任感与领导力为整个西方所瞩目。有观点认为，这另一方面也在客观上强化了西方世界的身份认同。甚至有人因此推断，布热津斯基等美欧战略学家所推崇的“大西方”有可能趋近成为现实。但我认为，下这个论断过于自信了。因为所谓“西方”的身份认同危机是绝非仅仅因为“中国因素”的外因所致，也难以通过炒作所谓“中国威胁”来重建。

我们首先要提出的问题是，“西方”和“大西方”的范畴是什么？包括哪些国家和地区？究竟是一个地理的范畴，还是一个文化的范畴？还是一个制度的范畴？显然，在欧美一些战略家心目中，如果“西方”仍然指传统上的欧美为主体的地理文化范畴，那么“大西方”概念，显然是按照价值观和制度认同的范畴来界定了，应该包括了亚太以及拉美许多信奉自由主义理念和制度的国家。

另一个更重要的问题是，导致“西方缺失”的驱动力究竟是什么？是内因还是外因？欧美人谈论“西方的缺失”时，显然也注意到了比特朗普个人更为长期和深层的原因。现在的西方社会的认同危机，主要涉及宗教、文化、种族、治理机制等意义上的西方经济、社会和生活方式。讨论焦点，主要集中在技术、人口和全球化层面。

比如技术问题对西方“个体本位”的自由主义理念带来了巨大冲击。进入21世纪，人工智能叠加大数据，正彻底颠覆人类的生活方式。以色列历史学家尤瓦尔·赫拉利在其著作《今日简史》提出的“大数据 人工智能”发展使得普通人“既没有自由又没有平等”的担心日益成为现实。这是在西方社会普遍关注的问题。人口结构问题是另一大问题。欧美国家面临着人口老龄化和少子化的压力，需要吸引外来人口来平衡人口结构，从不同种族、不同文化、不同宗教地区的外来移民问题会随之突出。那么，以基督教为基础、以白人种族为主体等西方人及其生活方式界定的西方政治、经济和日常生活方式能否还能存续下去？这是西方社会的另一个集体焦虑。此外，经济全球化所带来的制造业流失和产业空心化等问题也在西方社会引发激烈讨论。究竟应该如何看待经济全球化？西方社会目前尚未形成共识。

因此，西方的认同危机既来自内部也来自外部，但以内因为主。某种意义上，西方实际上更担心来自内部的“敌人”。但在一些西方国家，对一届政府来说，“内部的敌人”在政治议程上是没有吸引力的，因此强化“外在的敌人”来说，对吸引选民来说更为简单。但是，看不到上述的这些“内因”对西方社会认同的冲击，仅仅依赖所谓“外部敌人”在意识形态上、生活方式上的不同，进行标签化、政治化的对立，也许可以一时激起民众对所谓“外来敌人”的恐惧，但无法成为重建西方共识和认同的长期的粘合剂，更不用说要凝聚起“大西方”的集体认同了。

**对外交往抓“公约数”创新中美合作议程**

需要格外关注的是，新冠疫情的大流行，严重冲击了以发展中世界为主力的“第三波现代化”进程。如果国际社会无法团结一致、尽早平息疫情，止住世界经济下滑趋势，如果广大发展中国家和地区没能化压力为改革动力，以新发展理念提升自身产业能级和经济结构的韧性,则不仅发展中世界自上世纪90年代以来逐步加快的现代化进程可能会较长时间陷入低迷,本世纪以来国际权势“东升西降”的变化格局可能因此改写，而且将导致全球人类可持续发展事业的全面逆转。

在这样的背景下，在思考自己在后疫情时代的定位时，我们可以定位自己为一个不断成长的、为维护国际秩序和平稳定和全球可持续发展做出更大贡献的国家。

其中有一个关键词，还是“可持续发展”。中国作为世界上最大的发展中国家，始终坚持把可持续发展是第一要务。可持续发展议程，更是我们对外交往中一个重要的“公约数”。

眼下，新冠疫情使得人类可持续发展又到了不进则退的临界点。联合国正倡导国际社会在应对疫情时，以“超越复苏”的前瞻式应对举措“化危为机”，推动全球可持续发展议程迈入新阶段。我们看到，联合国在成立75周年之际，其主要机构连续发布报告，呼吁国际社会以及各经济体中的全体利益利益攸关方携手合作，共建一项强调“人本”而非“物本”的新社会契约。这些主张，同我国提出的一系列创新发展议程，包括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和新发展观为指导高质量发展理念，有着众多的共通之处，是我们与国际社会一道推进全球可持续发展进入新阶段的着力点，也是新时期创新中美合作议程的聚合点。

中国一直高度重视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2016年 9月，中国政府发布《中国落实 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两年多来，中国政府按照《国别方案》指标要求，在经济、社会、环境三大领域平衡推进落实工作，取得诸多早期收获，并向联合国等国际社会推荐了一批可复制、可借鉴的中国典型案例。上海国际问题研究院的研究团队对此做出了重要贡献。

当然，在整个抗疫过程中，我们也看到西方舆论对中国的打压和污名化现象比较多。对此，我们应该更加积极主动阐释中国“高质量发展理念”和“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及其背后的价值体系、知识体系和制度意义，找到更多与当下国际社会发展理念共通的契合点，创新更多可持续发展的合作议程。对此，我们是有充分信心的，毕竟中国的发展成效有目共睹，中国的“发展故事”及其背后的知识和价值提炼也是国际社会所期待。当然，如果学会用国际通用的概念讲我们的故事，会起到事半功倍的效果。总结我们的对外交往经验时会发现，往往当我们对外交往时，越是过于突出政治话语的“中国特色”，又缺乏必要的阐释，不被理解甚至被刻意曲解的可能性就越大。因此，善于在国际交往中运用“融通概念”，并共同创造更多新的“融通概念”来阐释我们的发展理念和独特的发展故事，不仅是我们各级官员，尤其是我们从事社会科学研究和智库工作者的重要任务。此外，对外交往是一门艺术，始终保持谦虚谨慎仍然非常重要。

중국국제문제연구원

**美对华市场依赖很大 完全“脱钩”可能性不大**

滕建群 中国国际问题研究院 美国研究所所长 ｜ 时间 2020-08-11

人民网北京8月7日电（记者周晶） 近段时间以来，中美关系紧张升级引起国际社会普遍担忧。作为21世纪最重要的双边关系之一，中美关系未来何去何从？**中国国际问题研究院美国研究所所长滕建群**在由人民网强国论坛部举办的“当前国际形势与中美关系走向”线上研讨会上表示，美国确有酝酿“脱钩”的迹象，但美国对中国市场的依赖还是很大，很难完全剥离，中美不太可能走向“新冷战”。

“현재의 국제 정세와 중미 관계 동향”은 미국이 실제로“분리”의 조짐을 일으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以下是访谈全文：

记者：近日美方关闭中国驻休斯敦总领馆，中方已做出对等反制，关闭美驻成都总领馆。在您看来，美国为何突然做出这一蓄意破坏中美关系的举动？未来美方会不会采取下一步动作？

**滕建群**：美国最近几个月对我们发起全面打压和围攻，源于两种认知的叠加。一是选举的需要；二是包括蓬佩奥在内的一些政客在为自己的2024年谋位积累资本。

미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우리에 대한 포괄적 인 탄압과 포위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는 두 가지 종류의 인식이 중첩 된 것입니다. 하나는 선거의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폼페이 오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2024 년 동안 자본을 축적 할 위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对于美方关闭我驻休斯敦领事馆的蛮横无理做法，中国做出反制是有理、有据和有力的。对此，美方称不排除关闭更多中国驻美外交机构的威胁，我相信未来我们的反制工具箱里还有各种工具能应对美国咄咄逼人的挑战。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하는 미국의 불합리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응책은 정당하고 근거가 있으며 강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미국에서 더 많은 중국 외교 공관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미국의 공격적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도구 상자에 다양한 도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记者：一段时间来，中美关系所面临十分严峻的挑战，有媒体称“两国关系已跌至几十年来的最低点”，有人担心中美关系会走向“新冷战”，您认为未来中美关系是否会“脱钩”？

한동안 미중 관계는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 해 있으며, 일부 언론은“양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중미 관계가 '신냉전'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디커플링"은 됩니까?

**滕建群**： 美国正在按照自己的意图一步一步往前走。一是政治层面。归根到底，美方只有一个目的，就是把中国和所谓的自由世界对立起来。二是美国切断中美之间人文层面的交流。三是技术层面，美国对华为等在信息技术和数码技术方面的优势感到恐惧。四是军事层面，美国提出要把台湾邀请到环太平洋进行联合军事演习。

미국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수준입니다. 최종 분석에서 미국은 중국과 이른바 자유 세계를 적대하는 목적이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과 미국 간의 문화 교류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인데, 미국은 정보 기술과 디지털 기술에서 화웨이의 장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군사 수준으로, 미국은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 대만을 환 태평양 지역으로 초청 할 것을 제안합니다.

多个迹象表明，美国确有酝酿“脱钩”的迹象，但我觉得美国对中国市场的依赖还是很大，很难完全剥离，中美不太可能走向“新冷战”。

记者：近日，美方在印太地区举行多场针对性极强的军事演习，并不断加大同台湾地区的军事联系，推动对台售武，炒作美台协训，对此，您有何评论？

미국이 실제로 '디커플링'을 양조하고 있다는 조짐이 많이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 매우 의존하고 있고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냉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滕建群**：这个问题实际上是政治打压、外交孤立、军事施压的重要组成部分。

我个人认为，南海打起来的可能性并不大，擦枪走火的可能性也不大，这只是美国施压的手段和策略。

개인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전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총을 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압력을 위한 수단이자 전략 일뿐입니다.